『大乘法相硏神章』 텍스트의 問題와 定本化의 必要性

-『大日本佛敎全書』 校勘形態 分析을 中心으로 -

The Textual Problems in *Daijō Hossō Kenshinshō* and the Necessity of Officializing

- Focusing on Analysis of Collated form of *Dai Nihon Bukkyō Zensho* -

李 海 榮 (Lee, Hea Young)*

◁ 목 차 ▷

1. 緖 論
2. 佛全本의 텍스트 現況 및 問題
 2.1 現存 텍스트 現況
 2.2 佛全本의 텍스트 活用上의 問題
3. 佛全本의 校勘實態와 定本化의 必要性
 3.1 佛全本 校勘方式
 3.2 校勘實態 把握을 통한 諸問題 導出
 3.3 定本化의 方向性 提案
4. 結 論
<참고문헌>

<초 록>

본 硏究는 筆者가 博士論文으로 진행하고 있는 '『大乘法相硏神章』 譯註 및 硏究' 과정 중에서 先決問題로 제기된 텍스트 校勘問題와 관련하여 校訂 텍스트의 必要性을 文獻學的으로 證明하고 텍스트의 定本化의 方向性을 제안하고자 하는 目的으로 硏究되었다. 『硏神章』의 現存 텍스트 현황을 통해 텍스트의 系統을 추정해 보았고, 佛全本과 각 텍스트와의 校勘實態把握을 통해 校勘 텍스트 상에 나타나는 問題點들을 導出하였다. 이러한 問題所在에 대한 명확한 認識을 바탕으로 『硏神章』의 새로운 校訂本의 必要性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텍스트 定本化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善本의 텍스트와 텍스트에 대한 명확한 記錄, 校勘對象에 대한 올바른 情報와 文脈의 理解, 校勘事項에 대한 구체적인 記錄 등이며 또한 기존 텍스트의 問題에 대해서는 과감한 校訂을 가하되, 著者의 視點을 늘 念頭에 두어야 한다.

要語: 大乘法相硏神章, 텍스트, 佛全本, 校勘, 定本化, 校訂本

<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for the philological proving the necessity of corrected text concerning collating issue, which had been raised like the one to be needed in prior settling, in the middle of translation, annotation and research course of *Daijō hossō kenshinshō*, which the author works for, and the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text officializing. First, through the state of the existing texts of "Kenshinshō," its genealogy was estimated, then by the work catching the collated conditions of the versions of "Zensho" and other else, the problems seen on the previous ones were derived. Based on a clear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e necessity of the new corrected version of the text was confirmed. Therefore, the important things to officialize the text are the existence of the good version of the text, its clear record, correct information of the object to collate, understanding the context, and detailed memos about collating issues etc. that should be performed. Furthermore, in about the problems of existing text, audacious correction is also necessary to the distance in keeping not beyond the writer's own view.

Key words: *Daijō hossō kenshinshō*, *Dai Nihon bukkyō zensho*, collated condition, text, officializing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불교융합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abbanggaya@naver.com)
투고일: 2020년 5월 8일 최초심사일: 2020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4일
서지학연구, 제82집, 197-215,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2.197

www.kci.go.kr

1. 緖 論

『大乘法相硏神章』(이하 『硏神章』이라 함)은 日本의 헤이안 초기 法相宗 학자인 護命이 嵯峨天皇 弘仁 13年(823)에 저술하고 淳和天皇의 칙명을 받아서 天長 7年(830년)에 上進한 天長勅撰六本宗書의 하나로서[1] 法相敎學의 要領을 크게 宣揚한 名著로 평가된다. 『硏神章』은 全5卷 總14門으로 內明과 因明에 걸쳐 그 要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日本 唯識 法相宗에는 南寺(元興寺 護命 계통)와 北寺(興福寺 善珠 계통)의 兩傳이 있었으며, 중엽이후 南寺의 전통은 쇠락하고 北寺만이 그 전통을 이어 발전하였다.[2] 『硏神章』에는 南寺의 견해, 또는 南寺의 입장에서 北寺의 주장을 비판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여, 敎理史적으로도 日本 唯識思想史上의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3] 더욱이 『硏神章』을 통해 新羅佛敎와의 관련성도 엿볼 수 있어서, 韓日佛敎史의 자료로서도 충분히 硏究할 만한 價値가 있다고 생각된다.[4]

현재 『硏神章』은 여섯 개의 寫本이 東寺觀智院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刊本으로는 『大日本佛敎全書』(이하 『佛全』로 칭함)와 『日本大藏經』(이하 『日藏』으로 칭함) 및 『大正新修大藏經』(이하 『大正』으로 칭함), 그리고 『大正』 수록본을 번역한 『國譯一切經』(이하 『國譯』으로 칭함) 등에 수록되어서 유통되고 있다. 또한 寫本의 경우, 全五卷이 筆寫되어 전하는 것과 앞의 三卷만 筆寫되어 전하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세 개[5]의 刊本 중, ⓐ 『大正』 수록본은 原文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東寺觀智院藏古寫本을 原本으로, 法隆寺藏寫本과 『日藏』 수록본을 對校本으로 하였음을 卷頭의 脚註에 밝히고 있다. ⓑ 『佛全』 수록본은 原本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原本과 對校本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그 解題((富貴原章信 書)를 통해 原本이 東寺觀智院藏本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또 對校本의 경우 解題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지만,[6] 『國譯』의 解題(昭和12年, 結城令聞 識)에 근거하면, 『大正』 수록본과 동일한 法隆寺藏寫本임을 알 수 있다.[7] ⓒ 『日藏』 수록본도 原本에 수정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原本과 對校本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佛全』 수록본(舊版[8])과 일부의 筆寫本[9]을 原本으로

1) 深浦正文, 『唯識學硏究』 上卷 (京都: 永田文昌堂, 昭和47年), 388.
2) 岩野眞雄 編, 『國譯一切經』, 和漢撰述部, 諸宗部(15)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56(1981)).
3) 深浦正文, 『唯識學硏究』 上卷, 388.
4) 總14門으로 이루어진 硏神章 중, 第9門의 俱舍宗條에서는 新羅의 順本法師에게 직접 '用滅傳'을 배웠다는 기록과 더불어, 第8門과 第9門 및 第10門과 第12門等에서 新羅佛敎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5) 『國譯一切經』의 경우, 大正藏에 대한 國譯이므로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佛敎全書』 解題에 '諸本'이라고 하여 前三卷寫本(高野山)·明治四三年(1910)寫(大谷大)·寫本(龍谷大)의 세 개의 本을 소개하고 있는데, 『佛全』 수록본 本文의 校勘註에는 '法隆寺本'이라고 하였다.
7) 『國譯』의 解題에, '法隆寺藏寫本'은 "大日本佛敎全書本卷第四末尾の奧書によりて高野山藏の寫本より傳寫せるものなるを知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8) 『佛敎全書』는 名著普及會에서 간행한 二段(舊版)과 鈴木學術財團에서 편찬한 三段(新版)의 두 종류가 있다.
9) 第1卷 第4門 뒷부분부터 第2卷 第6門까지는 2百字 원고지 55枚 분량은 筆寫本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筆寫本에

www.kci.go.kr

하고 있으며, 별도의 對校本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유통본 검토결과 간행과정에서 교감 텍스트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大正』수록본의 경우는, 原文을 교정하지 않고 脚註로 교감사항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原文에 매우 많은 誤・脫字와 脫・衍文 등이 발견되어 原文 그대로의 解讀이 어려우며, 일일이 脚註를 대조하면서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 외에 큰 문제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佛全』수록본의 경우는, 原本과 對校本의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原文에 많은 교정과 교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교정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교정이나 교감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佛全』수록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日藏』수록본의 경우는, 일부의 筆寫本을 제외한 전체가 舊版의『佛全』수록본을 底本으로 하고 있으면서 筆寫本과『佛全』수록본의 교감사항에 대해 本文으로 고치거나 아예 삭제하거나 'ィ～'라고 하여 細註로 남기거나 하는 교감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정 과정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나 이유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10] 따라서 이미 신뢰성이 문제시 되는『佛全』수록본에 다시 교감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이 교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를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현재 필자는『大正』수록본을 底本으로 하고, 세 개의 刊本(佛全・日藏・國譯)과 두 개의 寫本(大谷本・龍谷本), 그리고 寫本과 刊本으로 이루어진 京都本과의 교감을 마친 상태이며, 지금까지『研神章』全五卷의 총 교감 수는 대략 2천 8백여 건 정도가 된다. 여기에 앞으로『大正』수록본의 原本인 觀智院所藏本의 교감이 추가될 계획이어서, 그 교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교감 대상의 유형을 보면 '誤字'나 '脫字'뿐만이 아니라, '句節'이나 '文章' 등에서도 이러한 교감사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研神章』의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의 定本化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바로 기존의 교정 텍스트인『佛全』수록본의 교감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佛全』수록본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定本化된 새로운 교정 텍스트는『大正』과『日藏』수록본의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의 집필 목적은『研神章』에 대해서 새로운 교정 텍스트의 필요성을 텍스트 교감을 통해 문헌학적으로 증명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존 텍스트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기존의 교정 텍스트인『佛全』수록본의 解題에서 밝히고 있는 寫本들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對校本과 교감하고 있는 前3卷(全5卷 중 3卷)에 대해, 각 刊本 수록본과 필자가 입수한, 또는 입수하지 못했더라도 추정이 가능한 관련 텍스트들과의 교감사항을 파악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대한 일체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서, 어느 寫本으로부터 傳寫한 것인지, 누가 筆寫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10)『日藏』수록본의 原本은 현재 京都大學校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서지사항에 의하면, 左白定胤의 校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底本으로 삼았던『佛全』수록본 本文이나 校勘註에 대해 補入・代替・削除・修訂 등을 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www.kci.go.kr

『佛全』 수록본의 교감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밝히고 아울러 그 만들어진 과정을 추론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硏神章』의 새로운 교정텍스트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佛全本의 텍스트 現況 및 問題

2.1 現存 텍스트 現況

佛全本의 텍스트 現況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현존하는『硏神章』 텍스트들에 대해 소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현재 유통되고 있는『硏神章』의 刊本과 寫本*

數	略稱	텍스트 名稱	所藏處	卷數	形態	備考
1	佛全	佛敎全書本	大日本佛敎全書 第31卷	五卷	刊行本 (1915)	舊版第八十卷 原本, 對校本 표시 없음
2	日藏	日藏本	日本大藏經 第65卷	五卷	刊行本 (1915)	原本, 對校本 표시 없음
3	大正	大正藏本	大正新修大藏經 第71卷	五卷	刊行本 (1930)	原本: 觀智院藏古本 對校本: 法隆寺本, 日藏本
4	觀本	觀智院金剛藏本	東寺 觀智院	五卷	筆寫本	1755年 (眞言一宗勸學院僧正賢賀跋文)
5	龍谷	龍谷大本	龍谷大學	三卷	筆寫本	1832年(正智院良應筆寫)
6	大谷	大谷大本	大谷大學	三卷	筆寫本	1910年(眞宗大學圖書館)
7	法本	法隆寺藏寫本	未詳	三卷	筆寫本	1910年(南京二明末學定胤)
8		藥師寺本	藥師寺	三卷	筆寫本	現存 卷二・一册
9		高野山本	未詳	三卷	筆寫本	
10		京都大本	京都大學	五卷	寫・刊本**	日藏의 底本

* 출처: 日本古典書籍總合目錄,『國譯』 解題,『佛全』 解題
** 寫・刊本: 京都大所藏의 硏神章 書誌事項의 표기임

이 중에서 藥師寺本의 경우, 日本古典書籍總合目錄에는 三卷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東大寺에 소장되어 있는『藥師寺經藏目錄』에 의하면『大乘法相硏神章』 卷二・一册만이 소장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11] 京都本과 龍谷大本, 그리고 大谷大本은 필자가 직접 입수하였다.[12] 京都大本은,

11)『佛敎解說大辭典』 卷七 [p.343下]에, "然るに幸ひ藥師寺に初三卷の寫本あり、猶ほ後二卷は永く缺本なるべく思はれたりしに、更に又、東寺觀智院に五卷の完本が發見さ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東大寺所藏의 藥師寺經藏目錄은 後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刊本과 寫本이 혼용된 것으로, 舊版의 『佛全』에 수록된 『研神章』과 일부의 원고지에 필사한 寫本에 교감을 가한 本으로,[13] 이것을 간행한 것이 바로 『日藏』이다. 法隆寺藏寫本의 경우, 『日本古典書籍總合目錄』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國譯』과 『佛全』의 解題에서도 所藏處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所藏處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高野山本도 『佛全』의 解題에 소개되어 있을 뿐, 그 所藏處는 알 수 없다.

또한, 筆寫本의 卷數를 보면, 觀智院金剛藏本만 全五卷을 다 갖추고 있고 다른 寫本들은 모두 三卷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三卷으로 소개된 것 중에, 法隆寺藏寫本은 高野山藏本에서 전사하고 奧書가 있는 것, 龍谷本은 高野山 如意輪寺本板에서 筆寫되고 奧書가 없는 것, 『佛全』의 解題에 나오는 高野山本 등이 있는데, 모두 高野山과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大谷本의 경우도 그 유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교감을 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龍谷大本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跋文[14]의 내용으로 볼 때도 또한 如意輪寺藏의 筆寫本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藥師寺本을 제외하고는 모두 高野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研神章』 寫本은 크게 全五卷을 갖춘 觀智院 계통과 前三卷만을 所藏하고 있는 高野山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高野山 系統은 다시 奧書가 있는 法隆寺 계통과 奧書가 없는 如意輪寺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2.2 佛全本의 텍스트 活用上의 問題

佛全本의 텍스트 活用問題에 앞서 먼저 텍스트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佛全本은 그 解題에서 텍스트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卷數 : 五卷(卷第一-五)　　異名 : 研神章, 法相研神章
作者 : 護命(750-834)撰　　年代 : 天長七年(830)勅撰
底本 : 鎌倉中期寫(東寺觀智院)
諸本 : 前三卷寫本(高野山), 明治四三年(1910)寫(大谷大), 寫本(龍谷大)

解題에 따르면, 底本은 鎌倉中期(1222-1287)에 筆寫한 東寺觀智院本을 사용하였으며, 諸本으로는 前三卷寫本(高野山), 明治四三年(1910)寫(大谷大), 寫本(龍谷大)의 세 가지 本이 있다.

---

12) 寬政二年(1790) 刊行된 『諸宗章疏錄』 增補版(謙順 集)에, "案, 在高野如意輪寺藏. 但第五卷闕"(『諸宗章疏錄』 卷一p.75上)이라고 細註가 있어서, 當時까지는 第4卷이 存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如意輪寺 系統으로 추정하는 龍谷本과 大谷本은 모두 3卷뿐이다.

13) 교감자는 法隆寺의 左伯定胤으로 第5卷 말미에 跋文이 있다.
"一校加朱了. 大正四年八月二十五日(陰曆七月仲五僧自恣日). 玉山門葉鵤寺定胤."

14) 跋文. "諸宗章疏錄云 「研神章五卷, 護命述」, 按在高野山如意輪寺藏,但第五卷闕 … 今夏京都於第一卷以下三卷得書肆命之謄寫, 本書卽是也. …"

www.kci.go.kr

또한 佛全本의 텍스트와 관련하여,『國譯』의『硏神章』解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一、法隆寺藏寫本--高野山藏本より傳寫。
> 本書は四、五卷を缺如す。而して大日本佛敎全書本卷第四末尾の奧書[15]によりて高野山藏の寫本より傳寫せるものなるを知る。
> 二[16]、觀智院藏古寫本
> 卷末に、賢賀僧正の寶曆五年の跋文を附せる完本にして、大正大藏經所收の原本となれるものである。… 中略 … 其の中、大正大藏經本が觀智院藏古寫本を原本とせるは、自ら脚註に記載せる如くであるが日本大藏經本と佛敎全書本とは原本を明示してゐない。但し佛書硏究第十一七號によれば佛敎全書本も亦觀智院古寫本を原本となせるが如くであり、….

이상의 기록에 의거하여, 佛全本의 텍스트들에 대해 정리해 보면,

먼저 觀智院藏古寫本은 卷末에 賢賀僧正 寶曆 5年(1755)에 쓴 跋文[17]이 있는 完本으로 大正本에 수록된 原本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跋文은 佛全本의 卷末에 똑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跋文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佛全本의 底本은 大正本과 동일 계통의 觀本으로 보아지며, 두 本 사이에 상당 부분 字・句의 出入이 나타나고 필사자의 誤寫나 교감자의 誤讀을 감안하다면 하나의 寫本에서 傳寫된 觀智院系統本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佛全本의 解題에서 觀本을 鎌倉中期(1222~1287年)에 筆寫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解題를 쓴 富貴原章信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음으로 法隆寺藏寫本이 三卷이라는 점, 高野山藏本에서 傳寫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佛全本에 있는 奧書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大正本의 對校本인 法本이 佛全本의 對校本인 法本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佛全本의 解題에는 高野山本이라는 용어만 있고, 法隆寺本이라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아마도 高野山本이 法隆寺本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두 法本이 同一本이거나 같은 系統本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필자가 교감한 자료에 의하면 佛全本의 法本이 바로 大正本의 對校本인 法本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다른 餘地가 보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 마지막 龍谷本과 大谷本의 경우, 龍谷本은 跋文[18]에 仁平 4年(1154) 金剛峰寺에서 쓰여진 寫本을 高野山 如意輪寺本板으로 天保 2年(1831) 正智院의 良應이 傳寫한 寫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大谷本은 跋文[19]에

15) 奧書: 國譯一切經 解題에는 卷四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卷三末尾이다.
"永超東域傳燈目錄云、硏神章五卷、護命、我曾索二之我南京諸大寺之經庫而不獲其本矣、去歲據高野山之藏本乃使寫得畢、然所存止初三卷闕如其第四第五、惜哉、今玆一交加朱點、而難讀處亦不尠、他日有得好本、以令爲完璧乎、期法幸莫加焉也。明治四十三年九月仲五日。南京二明末學定胤和南."

16) 解題에는 '五'로 되어 있으나, 두 번째의 寫本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二'로 수정하였다.

17) 跋文. "右全部五帖。雖爲蟲損不能修補。棄置函底殆經年矣。一日襭閱之。偏難棄置焉。使弟子僧覺慧卽應自幸等補其闕略加其繕裝。傳永世了。是併爲敬寶律師等披見也。仰願曩祖早迴慈眼。令滿愚願而已。寶曆第五歲次乙亥六月十五日。眞言一宗勸學院僧正賢賀春秋七十二."

18) 跋文. "仁平4年(1154) 6월 7일 於金剛峰寺書了 偏爲無上菩提也. 斯章者天下希有之珍書也. 昨年辛卯冬以如意輪寺本板他手謄寫. 天保3年(1832)壬辰春二月佛滅前一日表飾功竟. 正智院良應."

19) 跋文. "諸宗章疏錄云 '硏神章五卷, 護命述, 按在高野山如意輪寺藏, 但第五卷闕'。然平祚當時旣第五卷逸. 今夏

www.kci.go.kr

明治 42年(1909) 京都의 한 서점에서 얻어 傳寫한 寫本으로 기록하고 있다. 龍谷本은 高野山 如意輪寺本板에서 筆寫한 것으로 卷三 末尾에 奧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앞의 法本과는 다른 系統本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大谷本의 경우는 書肆에서 得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래가 분명하지도 않거니와, 다른 寫本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글자와 句・文 등의 出入이 나타나고 있는 거친 筆寫本이다. 다만, 필자가 교감을 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龍谷本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서, 어쩌면 龍谷本을 필사하였거나 또는 如意輪寺本에서 傳寫되어진 다른 어떤 寫本을 筆寫한 것이 아닐까 推定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의 使用의 問題와 관련하여, 佛全本은 觀智院本(이하 '觀本'으로 略稱)과 法隆寺本(이하 '法本'으로 略稱)이라는 명칭만을 텍스트 교감에서 사용하고 있다. 觀本에 대해서는 解題에서 底本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刊本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對校本으로 사용되고 있는 法本에 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佛全本은 三卷인 寫本이 세 종류가 있다. 그 중 高野山本은 확인이 안 되었으며, 龍谷本과 大谷本은 奧書가 없다. 다만, 『國譯』의 解題에 따라, 高野山本이 法本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 교감의 결과를 보면 佛全本의 法本은 龍谷本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後說). 따라서 필자는 교감 결과를 바탕으로 佛全本에서의 法本에는 단순히 高野山本만이 아니라 다른 두 寫本의 내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佛全本의 교감사항의 기록방식에서 보면, 原文을 수정하고 교감사항에 觀本에 대해서만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때 이 수정된 내용을 法本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필자는 텍스트 교감에서 이 부분을 法本으로 상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佛全本에서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情況에 따른 선택일 뿐 확증할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3. 佛全本의 校勘實態와 定本化의 必要性

3.1 佛全本 校勘方式

佛全本의 교감방식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大正本의 교감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大正藏』은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와타나베 가이교쿠(渡辺海旭), 오노겐묘(小野玄妙) 등이 편집 주관하에, 서구의 문헌학을 바탕으로 서구적인 교감방식을 통한 전형적인 디플로마틱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교정본이다. 따라서 이 『大正藏』에 수록된 『研神章』도 디플로마틱 방식을 이용하여 原本인 觀智院藏古本은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第1卷의 하단 脚註에 原本(觀智院藏古寫本)과 對校本(<甲>法隆寺藏寫本, <乙>日本大藏經刊本)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京都於第一卷以下三卷得書肆, 命之謄寫本書卽是也。他日第四卷得謄寫欽(?)補可頁(?)也。明治四十三年(1910) 九月 眞宗大學圖書館."

www.kci.go.kr

있다. 또한 각주를 통해 매 교감 대상에 대해 교감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 교감 상황을 보면, 全5卷의 총 교감 수는 1,399個이며, 이 중 前3卷은 844個의 교감이 있다(중복표시인 '*'는 數에 넣지 않음). 『硏神章』 경우 교감대상이 상당히 많고,[20] 각 텍스트와의 교감 결과 大正本의 本文에 대해 字・句 등의 수정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脫文・衍文 등이 발견되어서, 大正本처럼 原文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내용파악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大正本과 같은 디플로마틱 방식은 그리 유용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全書本은 교감과정에서 교감자 또는 편집자가 직접 原文을 수정해나가는 크리티컬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校訂本이다.[21] 그리고 사용된 原本이나 對校本에 대한 자료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각 교감사항에 대해서는 本文에 細註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교감 상황을 보면, 全5卷의 총 교감 數는 1,180餘件이며, 그 중 前3卷의 교감 數는 920餘件이다. 佛全本은 大正本과는 달리 잘못된 原文에 이미 校訂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이 순탄하고 내용파악이 비교적 容易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脚註를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덜하다. 하지만 그 교감사항의 記錄面에서 보면,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校訂本에 대한 信賴度는 오히려 낮게 평가되어진다.

이러한 佛全本의 교감 방식의 문제점의 파악에 들어가기 전에 佛全本에서 보여지는 교감형태를 몇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佛全本의 유형별 교감의 예

類	位置	大正本	佛全本	校勘事項	結果
①	1a13	徒	徒	(考)徒作從,	從
②	1c17	小	小洲	(考)洲觀本無, 可也	小
③	1b08	苦	苦	(考)苦法隆寺本作若.	苦
④	1c06	界	界	(考)界觀本作相	界
⑤	3c07	無處母	天處女	(考)天觀本無, 女觀本作母	無處女
⑥	4a11	祥	詳	(考)詳法觀二本共作祥	詳
⑦	12c23	處處	處處	(考)處處論文作漸漸	處處
⑧	18a17	起	起造惡業	(考)造惡業法觀二本俱無 今依唯識述起一本插入	起
⑨	18b29	協	慢	(考)慢觀本或作快亦作協今案恐慢歟	協
⑩	20c21	示	示	(考)示下恐方字脫歟但法觀二本共無	示
⑪	27b20	說師多有	有多師說	(考)有多師說法觀二本俱作說師多有然恐不可. 今依佐伯師說假爲有多師說.	說師多有

* '위치'는 SAT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를 가리키며, '結果'는 교감의 최종 결과이다. 以下同.

20) 현재 필자가 교감한 것에 의하면(刊本2, 寫本3, 기타), 全5卷에서 발생한 총 교감대상은 2천 8백여 건이며, 이 중 前3卷에서는 1천 9백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大正本의 原本이 교감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 原本이 입수되어 교감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 『佛全』이나 『日藏』에서는 특별히 校勘과 관련한 어떠한 規定도 言及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佛全本의 경우 단지 校勘狀況들을 보고 추정할 뿐이다. 日藏本의 경우는, 刊本의 原本인 京都本을 직접 입수하여 볼 수 있었으며, 그 校勘과 校訂된 사항들을 볼 때, 편집자인 左伯定胤의 任意的 判斷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www.kci.go.kr

①은 교감자의 교감 기록만 있는 경우이다. 이 기록만으로는 本文을 수정하고 底本인 觀本에 대해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對校本이 從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②는 교감자가 本文에 洲를 補入하고 교감사항에 '洲觀本無, 可也'라고 기록한 경우이다. 즉, '觀本에는 "洲"가 없지만,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이다. ③의 경우는 본문의 '苦'가 法隆寺本에는 '若'으로 되어 있다는 교감기록이다. 이후 교감에서는 '法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法本이 그 解題에서 말하는 것 중의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른 對校本이 있었던 것인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필자의 교감결과 若으로 되어 있는 것은 大谷本이었다. ④의 경우는 본문을 수정하고, 그 수정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는 佛全本의 底本인 觀本이 '相'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수정한 '界'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⑤는 本文을 '天處女'로 수정하고 교감사항으로 '天'이 觀本에 '無'로 되어있고, '女'가 觀本에 '母'로 되어 있다고 기록한 경우이다. 하지만, 수정한 '天處女'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⑥은 本文을 '詳'으로 수정하고 교감사항에 法本과 觀本이 모두 '祥'이라고 기록한 경우이다. 그러나 '詳'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⑦은 본문의 '處處'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論文에서는 '漸漸'으로 되어 있다는 교감기록의 경우이다. 그러나 어느 論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⑧의 경우는 觀本과 法本에 모두 없는 것을 교감자가 引用文으로 생각하고 있는『唯識述起』一本에 의거하여 本文에 '造惡業'을 삽입하였다는 기록사항이다. ⑨는 교감자가 本文을 '慢'으로 수정하고 교감내용을 기록한 경우이다. 즉 觀本의 筆寫體가 '快'이거나 혹은 '協'인 것 같지만, 지금 교감자 본인의 의견으로는 '慢'인 것 같다라는 기록이다. ⑩의 경우는 '示' 아래 '方'이 脫字된 것 같은데, 觀本과 法本에 모두 없다는 교감 기록이다. ⑪은 觀本과 法本이 모두 '說師多有'이나 교감자는 左白定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로 '有多師說'로 교정하였다고 기록한 경우이다.

이상, 佛全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교감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교감사항에 대한 기록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교감기록 자체가 온전하지 않거나, 교감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典據가 틀리거나 불충분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우, 잘못 수정된 경우 등의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그 교감실태를 파악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질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研神章』의 경우 디플로마틱의 방식은 유용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크리티칼 방식이 비교적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티칼 방식에 의해 새로운 교정본으로 만들어진 佛全本의 경우 과연 善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크리티칼 방식을 선택할 경우, 편집자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사용된 텍스트들에 대한 분명한 기록과 교감 대상에 대해 상세한(독자들이 이해할 만할 정도) 설명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면, 교감 사항들에 대한 是非의 論爭은 물론이거니와 그 교정본의 信賴性에 대한 근본적인 不信이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日藏本의 경우, 일부 筆寫本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佛全本을 底本으로 하고 거기에 많은 수정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교정본이다. 따라서 佛全本에 대해 그 신뢰성이 의심되어진다면, 그것을 근간으로

www.kci.go.kr

하여 만들어진 日藏本의 가치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佛全本의 교감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하여 그 교정본의 만들어진 과정을 규명해 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佛全本의 교감과 관련한 問題點 분석을 통해 『硏神章』의 定本化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3.2 校勘實態 把握을 통한 諸問題 導出

佛全本은 第3卷까지만 교감사항이 '(考)觀本-, (考)法本-'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第4卷과 第5卷은 '(考)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佛全本이 교감대상으로 한 교감본은 3卷까지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텍스트 자체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第3卷까지의 교감 사항을 중심으로 각 텍스트들의 교감실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는 직접 교감의 예를 통해 그 기록사항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향후 텍스트를 定本化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악되어야 할 교감 텍스트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第3卷까지의 교감현황을 통해 寫本의 대략적인 系統에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필자가 교감한 第3卷까지의 총 교감 개수는 약 1,960여 개가 된다. 그 중에 佛全本과 大正本이 다른 경우는 약 450여 개 정도이며, 이 중에 佛全本의 原本인 觀本과 大正本의 原本인 觀本과 내용이 다른 것은 150여 개 정도이다. 즉, 전체 교감 數에서 두 觀本이 다른 경우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 중, 筆寫의 誤讀이나 脫字・脫句・衍句 등이 비교적 많으며, 완전히 다른 글자나 완전히 다른 句文의 출입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일단 이 두 本은 동일한 觀智院古寫本에서 傳寫되어 나온 동일계통의 두 개의 寫本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佛全本 자체에서 발생되었던 校勘數는 총 920여 개인데, 이것을 가지고 大正本의 對校本인 法本(1)과 佛全本의 對校本인 法本 및 龍谷本과 大谷本 등 四本을 대조 교감한 결과, 四本이 모두 같은 경우는 630여 개로 약 68% 정도이고, 三本(法本・龍谷本・大谷本)이 같은 경우는 210여 개로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였다. 이 두 결과를 합하면 三本이 같은 경우가 총 840여 개로 약 91%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9%(약 80여 개) 중에서, 法本과 龍谷本이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數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감 결과로 보면, 佛全本에서 말하는 法本은 大正本의 法本(1)보다 오히려 龍谷本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法本과 大谷本만 같은 경우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法本이 奧書가 있다는 면에서 같은 法隆寺 系統임을 인정한다하더라도, 佛全本의 法本에는 奧書가 없는 如意輪寺 系統의 龍谷本이나 大谷本의 내용이 많이 干與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佛全本과 각 텍스트와의 교감실태를 구체적인 例示를 통해 설명한다.

www.kci.go.kr

교감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호 등은 다음과 같다.

* 일러두기
① 텍스트 약호 : 각 텍스트의 약호는 앞의 〈표 1〉의 '略稱'으로 한다. '結果'는 교감 대상이면서 교감 결과를 말한다.
② 페이지 위치 : SAT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에서 제공하는 페이지이다.
③ 大正藏의 대교본인 法隆寺本(甲)은 '法本(1)', 全書本의 대교본인 法隆寺本은 '法本'으로 표기하였다.
④ 佛全本의 교감 중에서, 本文을 수정하고 교감사항에 '(考)觀本-'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수정된 글자는 法本의 것으로 하였다.

먼저 교감 대상에 대한 정보력의 부족에서 온 오류의 예이다.

<표 3> 佛全本과 각 텍스트 교감실태 1

數	位置	本文	校勘事項	法本(1)	龍谷本	大谷本	結果
①	3c07	天處女	(考)天觀本無, 女觀本作母	天處女	天處女	天處女	無處女
②	17a29	法上部	(考)法上部觀本無	法上部	法上部	法上部	法藏部
③	3a08	十	(考)十觀本作一億	十	十	十一	一億
④	5c17	所有處	(考)處觀本無	所有處	所有處	處有處	所有
⑤	1c29	岫	(考)岫法本作軸	岫	岫	軸	軸
⑥	8c28	尊	(考)尊觀本作養	養尊	養	養	養
⑦	9a18	叢林	(考)叢觀本作聚	叢林	藂林亦	聚林亦	叢林亦

①은 本文을 '天處女'로 수정하고 교감사항으로 '天觀本無, 女觀本作母'로 기록하고 있다. 法本(1)·龍谷本·大谷本 모두 '天處女'이다. 이 문장은 六天의 生相을 묻는 問答으로, 『瑜伽師地論』의 '一切欲界天衆無有處女胎藏'을 인용하면서 '無有處女胎藏'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을 '天處女'로 수정하면서 오히려 '欲界六天中**天處女**'라는 誤文이 되었다. ②는 편집자가 本文에 '法上部'를 補入한 경우로, 法本(1)·龍谷本·大谷本 모두 '法上部'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은 窺基의 『大乘法苑義林章』 卷第一의 敎益을 설명하는 글을 인용해 온 것으로 敎益의 두 가지 중 輪益을 설명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異計10部와 大乘10部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중 法上部는 異計10部에 포함되며, 이 교감대상의 글은 大乘10部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法藏部'가 여기에 속한다.[22] 따라서 '法藏部'로 補入되어야 하는 문장이다. ③의 경우는 숫자의 표기방식의 문제이다. 『漢語大詞典』(p1697)에서 '古代或以十萬爲億, 或萬萬爲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古代에는 '十萬' 또는 '萬萬'을 '一億'의 표기상식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문장의 '從此地平 一億六萬八千由旬 有夜摩天'에서의 '一億六萬'은 '十六萬'과 같은 수치이다. 그러므로 교감수정보다는 표기방식을 기록해 주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④의 경우는 本文에 '處'를 補入하고 교감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22) 『大乘法苑義林章』 卷第一 [p0245a26]其大衆部. 一說部. 說出世部. 雞胤部. 說假部. 制多山部. 西山住部. 北山住部. **法藏部**. 飮光部十部同說。佛一切語皆爲利益。

www.kci.go.kr

이 문장은 無色界를 설명하는 부분 중 無所有處라고 부르는 까닭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23] 引用文은 아니지만 동일한 설명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모두 '作無所**有**解'라고 하였다. 따라서 原文에 교감수정을 가하여 오히려 誤文이 되었다. ⑤의 경우는 7金山 중의 여섯 번째 金山의 명칭이다.[24] 일반적으로 山名이라면 '岫'이라 쓰일 수도 있겠지만, 7金山은 모두 山名의 由來가 있으며 그 유래에 따라 '軸'字를 쓴 것으로, 經論에서도 모두 '軸'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교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⑥은 本文을 法本의 '尊'으로 교정하고 교감사항에 觀本에는 '養'이라고 기록한 경우이다. 法本(1)은 養尊이고, 龍谷・大谷本은 '養'이다. 이 문장은 『善惡業報經』의 내용을 그대로 引用[25]하여, 十惡을 여의고 얻은 善業을 회향했을 때 얻는 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마땅히 모두 恭敬하고 供養한다는 '養'이어야 하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교감자는 오히려 原文을 교감수정하고 있다. ⑦의 경우는, 本文의 '聚'를 '叢'으로 수정하고 교감사항을 기록한 경우이다. 이 문장은 『十善業道經』의 引用文[26]으로 經에는 '叢林亦'으로 되어 있다. 大正本에는 '聚林亦'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佛全本의 原本이 大正本과 같은 觀本이라면 全書本에 '亦'이 脫字되었을 것이다. '聚'와 '叢'은 誤寫난 誤讀이더라도 같은 뜻을 가진 字이므로 굳이 교정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引用文上으로나 文脈上으로 보면, '亦'이 補入되어야 하는 문장이다.

다음으로 교감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교정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의 예이다.

<표 4> 佛全本과 각 텍스트 교감실태 2

數	位置	本文	校勘事項	法本(1)	龍谷本	大谷本	結果
⑧	17a07	不分卷.		不分卷.	不分卷.	不分卷.	分卷.
⑨	21c09	本本 : 守護乃至彼旨九十行總1,213字 (★교감사항 없음) 法本(1)・龍谷本・大谷本 : [守護乃至彼旨]九十行總1,213字 結果 : 守護乃至彼旨九十行1,213字					
⑩	18c21	依	(考)依法觀二本俱作像今恐依字誤歟	依	像	像	像
⑪	4a11	詳	(考)詳法觀二本共作祥	詳	禪	禪	詳

⑧은 分卷에 관한 교감이다. 大正本은 第2卷이 끝나고 第3卷으로 分卷한다. 그리고 교감주에서 '不分卷(甲・乙)'이라고 하여 法本(1)과 日藏本은 分卷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佛全本의 底本(原本)이 大正本과 같은 계통의 觀本이라면, 佛全本에서도 分卷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佛全本은 分卷되어 있지 않으면서, 교감자는 分卷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고 있다. 觀本(五卷) 이외의 다른 三卷本들은 모두 동일하게 分卷하지 않았다. 물론 교감자 혹은 편집자

23) [p005c16]次厭內識思無所有。如是卽作無所**有**解。名無所有處。
『俱舍論頌疏論本』 第八 [T41_p864a28]次厭無邊識。思無所有。作無所**有**解。名無所有處。
24) 『俱舍論記』 卷第十一 [T41_p185c09]伊沙馱羅山。此云持**軸**。山峰上聳猶如車軸。此山能持故名持軸
25) 『十善業道經』 [p008c26]若能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後成佛時, 三界特尊, 皆共敬**養**。
26) 『十善業道經』 [T15_p159a23] 「龍王！當知此十善業, … 譬如一切城邑、聚落, 皆依大地而得安住；一切藥草、卉木、**叢林, 亦**皆依地而得生長。

www.kci.go.kr

가 판단하여 分卷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감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佛全本의 底本이 과연 觀智院本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⑨의 경우, 九十行 總1,213字의 긴 문장이 大正本과 佛全本에는 있지만 法本(1)과 龍谷・大谷本에는 모두 脫文되어 있는 경우이다. 佛全本에 아무런 교감사항이 없으므로 기록만으로 본다면 法本에는 이 문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감 중에 여러 곳에서 교감사항이 발생하였는데, 그때마다 佛全本의 교감기록이 모두 '恐～'라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法本도 脫文인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⑩은 本文을 수정하고 교감사항에 法觀二本이 모두 '像'이며 '像'은 '依'의 誤字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法本(1)은 '依'이고, 龍谷・大谷本은 '像'이다. 이 문장은 法藏의 五教와 慧苑의 四教에 대해 批判하는 부분[27]으로, 문장 내에 '放'과 '像' 두 단어가 나타난다. 둘 다 '모방하다' '본뜨다'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문맥상 모두 통한다. 護命은 이 글에서 法藏의 五教 중 앞의 三教는 『解深密經』의 三時教를 본뜬 것이고, 慧苑의 四教 중 뒤의 三教도 『解深密經』의 三時教를 본뜬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依'보다는 '放'과 '像'이 보다 더 護命의 뜻에 符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佛全本의 교감자는 이 두 글자가 모두 '依'일 것이라고 교감기록하면서도 '放'은 수정하지 않고, '像'만 수정하고 있다. ⑪은 本文을 '詳'으로 수정하고 교감사항에 法觀二本이 모두 '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하여 교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문맥상 '詳'이 적합하기는 하지만, 교감대상에 대해 교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교정된 글자에 대한 근거 또한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佛全本에서는 교감자의 생각인 경우 '恐～'이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다.

다음은 문장이나 문맥을 살피지 않아 잘못 삽입되거나 잘못 교정되는 경우의 예이다.

<표 5> 佛全本과 각 텍스트 교감실태 3

數	位置	本文	校勘事項	法本(1)	龍谷本	大谷本	結果
⑫	21a05	三量	(考)三量觀本無	三藏	三藏	三藏	三藏
⑬	9b10	生乃至盡壽離殺生	(考)乃至等七字恐衍觀本無.	生	生	生	生
⑭	1c17	小洲	(考)洲觀本無, 可也	小洲	小洲	小洲	小
⑮	15c12	本本 : 有問心王唯八以下『 』中四百二十八字 校勘事項 : (考)問心王唯八以下『 』中四百二十八字觀本全脫 法本(1)・龍谷本・大谷本 : 有問心王唯八以下『 』中四百二十八字 結果 : 問心王唯八以下『 』中467字					
⑯	8b01	得而	(考)得而觀本作生	而得	得而	得而	生
⑰	27b20	有多師說	(考)有多師說法觀二本俱作說師多有然恐不可. 今依佐伯師說假爲有多師說.	有多師說	說師多有	說師多有	說師多有
⑱	15b20	種子與	(考)種子法本無, 與觀本無	與	子	子	種子

27) [p018c16]問。法藏師立有五教。一小乘教。二大乘始教。三大乘終教。四頓教。五圓教。且見初三**放**深蜜三。後二若經文耶。… 初之三教**像**深蜜三。後之二教**放** * 何經論

www.kci.go.kr

⑫의 경우는, 교감자가 本文에 '三量'을 補入하고 교감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만으로 본다면 이 三量은 法本의 것이다. 그러나 法本(1)이나 龍谷本과 大谷本 모두 '三藏'으로 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此中은 三藏 중에서 律은 어디에 포섭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따라서 本文의 '此中'만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장인데,[28] '三量'을 補入함으로 인해 오히려 '此三量中'이라는 誤文이 되었다. ⑬은 교감자가 本文에 '乃至盡壽離殺生'을 삽입하여 수정을 하고 교감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교감자 스스로 이 문구가 衍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삽입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法本의 교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法本의 문장일 것이다. 그러나 法本(1)·龍谷本·大谷本에는 이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 이 문장은 『瑜伽師地論』에서 인용[29]한 문장으로 명백한 衍文인데, 편집자 스스로 衍文임을 의심하며서도 本文에 補入함으로 인해 오히려 誤文이 된 예이다. ⑭는 교감자가 本文에 洲를 補入하고 교감사항에 '洲觀本無, 可也'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 유사한 引用 文句[30]가 있는 부분으로, 문장에서 '小'는 '小洲'가 아니라 '五百小洲 중에서 적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 있다'는 의미이다.[31] 그러므로 '洲'를 삽입하는 것은 不可하다. 결국 교감자의 문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본문에 수정을 가하는 誤謬를 범한 것이다. ⑮는 本文에 428字를 補入하면서 그 교감사항에 '(考)問心王唯八以下『』中四百二十八字觀本全脫'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로 全書本의 삽입된 글자 數는 469字로 日藏本의 문장을 補入한 大正本의 글자 數와 동일하다. 또한 그 補入된 위치도 올바르지 않은데, 아마 法本의 위치 그대로 補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法本(1)·龍谷本·大谷本도 같은 위치이다. 이 脫文된 문장이 插入된 위치를 보면, '經部諸師 難大乘論所立唯識. [**『問…所』467字**[32]] 總有四難頌曰 若識無實境 則處時決定 相續不決定 作用不應成.'이다. 이 문장은 經量部의 論師들이 唯識을 論破하는 부분으로 4가지 論難에 대해 偈頌을 설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 이 插入된 문장은 이 論難에 앞서 八識을 唯識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5가지 부분으로 설명하는 問答 중, 두 번째인 識相應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插入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脫文된 문장을 補入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파악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감사항에 觀本에 全脫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잘못된 위치에 대한 기록을 없다. ⑯은 本文을 '得而'로 수정이고 그 교감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法本(1)은 '而得'이고, 龍谷·大谷本은 '得而'이다. 이 문장은 十善業에 관련된 문장으로 十惡을 여읨으로 인해 얻게 되는 善에 대해 묻는 말이다.[33] 만약 수정된 문장대로라면 '問。由離殺生惡得而

---

28) [p021a03]問。佛所說法三藏所攝。一修多羅藏。此云契經。二毘奈耶藏。此云調伏。三阿毘達磨藏。此云對法藏。**此中**。此律何攝耶。

29) 『瑜伽師地論』 卷第五十三 [p590a21]是名第五十行。若盡壽離殺生乃至離邪見。是名第六十行

30)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卷第一百七十二 [T27_p0868a06] 此八中洲一一復有五百小洲以爲眷屬。於中**或有人住**。或非人住。或有空者

31) [p01c16]此四大洲皆有人畜。故爲別處。從此別有五百小洲。而**或小有人**。或都無人。或唯有鬼神。或唯有畜生。故不別處也。

32) 글자 數의 차이는 '469字'는 大正本의 글자 수이며, '467字'는 필자의 교감이 끝난 상태의 글자 수이다.

33) [p008b01]問。由離殺生惡 **生**何等善耶。答。卽得成就十離惱法。

www.kci.go.kr

等善耶'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이 문장은 '而'가 접속사로, '得'은 後文의 술어가 되어야 하며, 뒤에 계속 되는 문장들도 '~而得~' 또는 '~而生~'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단어는 '而得'이나 '而生'으로 교정되어야 하거나, 또는 本文 그대로도 가능한 문장인데, '得而'로 교감수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⑰의 경우는 本文을 '有多師說'로 수정하고 그 교감사항을 기록한 경우이다. 기록에 의하면, 法觀二本이 모두 '說師多有'이나 교감자는 左伯定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로 '有多師說'로 교정하였다. 法本(1)은 '有多師說'이고, 龍谷・大谷本은 '說師多有'이다. 이 문장은 成實宗에 관한 것으로 成實論이 속하는 部派를 묻는 問答이다.[34] 漢文 문장대로라면 '有多師說'이 더 명확한 문장이겠지만, '說師多有'도 그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다. 오히려 『研神章』이 日本僧의 작품임을 고려한다면 '說師多有'가 좀 더 日本式 한문 투에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⑱의 경우는, 本文에 '與'를 補入하고 교감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으로 추정하자면, 法本에는 '與'만 있으며 그것을 本文에 補入하고 두 本에 없는 글자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法本(1)에는 '與'만 있고, 龍谷・大谷本에는 '子'만 있다. 이 문장은 第八識이 不隨心인 이유에 대해 答하는 부분이다. 이 문장은 '所緣種子影 前念種所生, 能緣第八見 現在種所生'으로, '所緣種子影-能緣第八見', '前念種所生-現在種所生'의 對句文이다. 護命은 對句의 문장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의미상으로도 '與'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장인데, 修正하여 오히려 誤文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全書本은 그 사용된 텍스트 自體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감사항이나 교감수정 내용, 그리고 교감기록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도출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새로운 校訂本을 통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그 定本化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3 定本化의 方向性 提案

3.3.1 텍스트 校勘 및 校訂의 必要性

寫本을 底本으로 하여 만든 刊本의 경우, 大正本처럼 原文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原本과 사용한 對校本의 출처를 명확히 註記하고, 교감 대상이 발생할 경우 교감사항의 기록만 분명히 하면 된다. 하지만 佛全本처럼 原文에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註記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底本으로 삼은 텍스트가 비교적 善本이거나 각기 다른 刊本이나 寫本들이 많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라면 原文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研神章』

34) [p027b20]問。此論者二十部中何部所攝耶。答。**說師多有**。然經部攝。是正義也。

www.kci.go.kr

처럼 寫本을 底本으로 하면서, 또 다른 寫本과 刊本들이 있는 경우라면, 게다가 底本으로 삼은 寫本이 인정할만한 善本이 아니라면, 충분한 교감을 거쳐 완정된 교정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世間에 유통이 활발해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전해진 寫本 또는 刊本들은 筆寫 과정에서나 刊本을 위한 편집과정에서 필체의 誤讀이나 筆寫者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原文에 삽입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譯註를 하는 사람이나 교정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텍스트의 교감작업과 교정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다만 관련 텍스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교감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분명한 설명들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譯註書나 校訂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不良本으로 誤認되거나 고작 原著者의 글에 자신의 생각을 짜깁기한 정도의 拙作으로 平價切下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定本化의 必要性을 바탕으로 佛全本의 問題點들에 대한 定本化의 方向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 提案해 보고자 한다.

3.3.2 텍스트 定本化의 方向性 提案

먼저, 텍스트들 중에 비교적 善本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底本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底本과 對校本으로 정해진 텍스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야 한다.[35] 佛全本의 경우 底本과 對校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解題를 통해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對校本으로 사용된 法本은 解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외에 세 가지 寫本(高野山本・龍谷大本・大谷大本)의 명칭만 소개하고 있다. 때문에, 法本이라는 것이 이 중 하나인지, 아니면 統稱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명시 되지 않은 또 다른 텍스트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설사 國譯本의 解題에서 奧書를 통해 全書本의 法本과 大正本의 法本(1)을 동일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하더라도, 全書本의 편집자 혹은 교감 당사자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佛全本은 이미 텍스트에 대한 疑惑을 바탕에 깔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底本뿐만 아니라 對校本들에 대해서도 그 숫자에 관계없이 낱낱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어느 本을 근거로 교정되고 있는 가를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對校本과 상관없이 校勘者(編輯者)의 의지로 原文을 고치게 되는 경우 그 이유나 근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36] 佛全本의 경우 획기적인 理解의 差異보다는 대부분 문맥의

35) 善本의 텍스트를 底本으로 삼을 경우, 原文에 손을 대는 일이 훨씬 적어질 수 있다. 原文을 修訂하는 것은 순전히 校勘者나 編輯者 개인의 意志와 力量이기 때문에, 좋은 校訂本을 기대하는 기대감만큼이나 매우 위험한 일이다. 校訂에 너무 충실하다보면 자칫 原著者의 의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 안에서 문맥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한 한 原文에 손을 대지 않고 교감사항에 대한 기록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붙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36) 校訂本은 어찌 보면 對校本을 근거로 하여 교정을 하였든 개인의 생각으로 하였든 똑같이 '내가 이해한 著者의

www.kci.go.kr

흐름상의 선택이나 讀法상의 문제, 혹은 引用文을 확인하지 않은데서 오는 차이이기는 하지만, 原文에 교정사항이 있음에도 교정된 글자는 對校本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교정사항에 대한 理由나 根據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이 글자가 어디서 온 것인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등의 의혹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사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정본에 대한 信賴性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佛全本도 이러한 信賴性의 疑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감사항에 대해 명확한 根據를 찾거나 再校訂을 통하여 바로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引用文의 경우는 최대한 引用文의 출처를 찾아 對照해야 하며, 만약 取意한 引用文이라면 著者의 意圖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감해야 한다.[37] 『硏神章』은 天皇에게 올리는 글이어서인지, 護命은 자신의 見解를 직접 敍述하기보다는 많은 經・論・疏・章 등의 글을 引用하여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見解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그대로 引用하는 경우도 많지만, 긴 문장일 경우는 간단히 하기 위해 取意하거나, 짧은 引用文이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글자를 줄인다거나 다른 글자로 바꾼다거나 글자의 자리를 옮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引用文이라 하여 무조건 원래의 문장에 맞추어 校訂을 하는 것은 자칫 著者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佛全本의 교감 중 많은 곳에서 引用文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原文을 수정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지금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다만 전문학자의 의견이나 對校本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은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 校訂되어 전해진 부분들에 대해 바로잡아야 하는 일은, 이 시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칼 방식을 통한 『硏神章』의 새로운 교정본의 간행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校勘方式을 크리티칼 방식으로 정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교정을 가하고, 교감사항의 기록을 통해 校勘前의 內容과 함께 校訂의 理由나 根據를 충분히 記錄하는 것이 필요하다. 佛全本의 경우, 제 위치가 아닌 곳에 놓여 있거나, 또 중복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 衍文으로 들어 있음에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衍文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校訂插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佛全本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校訂本이지만 결코 善本의 校訂本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맥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뜻이 不通하거나,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重複文이나 衍文,

---

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텍스트들과 다르게 교감하는 것은, 곧 '나는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著者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37) 本文에 引用文의 出處가 明示되지 않은 경우는 먼저 그 引用文의 典據를 찾아야 하며, 만약 동일한 문장으로 引用된 것이 아니라면, 引用文과 類似한 문장이 들어있는 몇몇 자료들을 모아서 引用文과 대조하여 가장 類似한 것으로 對照해 본다. 그러나 글을 引用해 올 때 문장 그대로를 가져오지 않고 取意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引用文이 들어있는 곳의 前後脈絡을 살피고, 또 이 문장을 가져다 사용한 곳의 文脈을 살펴서 문장을 다르게 인용해온 著者의 意圖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교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www.kci.go.kr

위치가 잘못 놓였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바로 잡아 교정하는 것도 校訂텍스트화 작업에서의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4. 結 論

지금까지『硏神章』텍스트의 問題와 正本化의 必要性과 관련하여『佛全』에 수록된『硏神章』의 校勘形態를 中心으로 텍스트 校勘實態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正本化의 필요성 및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존 텍스트의 현황 파악을 통해『硏神章』은 全5卷이 현존하고 있는 觀智院 계통과 前3卷만이 현존하는 高野山 계통의 두 계통이 있으며, 또한 高野山 系統에는 다시 奧書가 있는 法隆寺 系統과 奧書가 없는 如意輪寺 系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텍스트 校勘實態의 파악을 통한 問題點의 導出에서는 選定된 텍스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텍스트의 信賴性에 대한 근본적인 問題가 제시되었으며, 교감대상에 대한 情報力의 부족으로 인해 잘못 교정되는 事例들이 지적되었고, 교정 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자세하지 않거나 잘못 引用하거나 잘못 교정하거나, 또는 어떤 것은 기록하고 어떤 것을 기록하지 않는 등 一貫性이 없음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問題點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 正本化의 方向性과 새로운 교정 텍스트의 必要性을 論하면서, 善本의 텍스트 선택, 선택된 텍스트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기록, 교감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과 典據찾기, 그리고 이들을 기반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정 대상에 대한 결단력 등에 대해서 論義하였다.

筆者는, 지금까지 설명되어진 많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正本化를 통한 새로운 校訂本의 제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현 시점에서의 科題라고 생각한다. 한 時代 한 宗派를 대표하던 護命의 唯一한 現存書인『硏神章』에 대한 硏究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佛全本의 問題點들을 補完하여 새롭게 正本化된 校訂本이 만들어져 護命의 思想이 담긴『硏神章』에 대한 硏究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當代의 法相宗의 巨頭인 護命이『硏神章』에서 풀어내고자 했던 생각들을 보다 근접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나는, 현재 東寺의 觀智院에 所藏되어 있는 原寫本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大正本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과, 다른 하나는, 佛全本의 底本과 관련하여 약간의 疑惑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다. 차후 觀智院所藏의 原寫本과의 교감이 행해지면,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筆寫本. 龍谷大學校 所藏 筆寫本(3卷)
筆寫本. 大谷大學校 所藏 筆寫本(3卷)

刊行本.『大正新脩大藏經』卷七十一. 大正一切經刊行會(1924-1934).
刊行本.『日本大藏經』解題. 第九十八卷, 解題二. 財團法人 鈴木學術財團刊行. 1977.
刊行本.『大日本佛敎全書』舊版, 第八十卷. 名著普及會刊行, 1915.
刊行本.『大日本佛敎全書』解題, 新版, 第九十七卷. 財團法人 鈴木學術財團刊行, 1973.
刊行本.『國譯一切經』解題, 諸宗部(15), 岩野眞雄 編.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 56(1981).

深浦正文.『唯識學研究』上卷. 京都: 永田文昌堂, 昭和47年.
謙順 集.『諸宗章疏錄』卷一(『大日本佛敎全書』新版, 第九十五卷)
永超 集.『東域伝燈目錄』(上同)
藏俊 著.『注進法相宗章疏』(上同)
小野玄妙.『佛書解說大辭典』. 東京: 大東出版社, 1933.

www.kci.go.kr

www.kci.go.kr